www.ibita.or.kr
IBITA STORY
IBITA International Beauty Industry TradeAssociation
제2015-08호

IBITA 헤드라인 I

"IBITA, 주한 미대사관과 한국뷰티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 하기로"

윤주택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이사장(왼쪽), 마크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오른쪽)

CONTENTS

01 IBITA 헤드라인
02 IBITA 헤드라인 / 희망메시지
03 IBITA 헤드라인
04 IBITA, 현장리포트
05 IBITA, 현장리포트
06 IBITA Top News
07 IBITA Top News
08 미리 준비하는 신흥시장
09 해외전시 탐방기
10 해외박람회 미리보기
11 전시별 간략 개요
12 전시별 간략 개요

사단법인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한국뷰티산업무역원 | 발행인 : 윤 주 택 | 편집 : IBITA홍보기획실 | 이메일 : ibita@ibita.or.kr | 전화 : 02-861-8084~7 |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43-1 대성 디-폴리스 지식산업센터 B동 1302-2 | 팩스 : 02-6280-3368

(사)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주한 미국 대사관 초청 한미 FTA 3주년 기념만찬 참가

– 한 · 미 FTA 3주년 기념만찬에 한국 뷰티산업 대표단체 자격으로 참가 –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운데)와 윤주택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이사장(왼쪽 뒷줄 첫번째),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와 각 산업별 대표자의 한-미 FTA 3주년 만찬 기념사진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윤주택 이사장은 지난 4월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파크볼룸에서 개최된 한-미 FTA 3주년 기념 만찬에 마크 리퍼트 (Mark W. Lippert) 주한 미국대사 초청으로 참가하였다.

이번 기념 만찬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주최로, 한-미 양국간 동맹 강화와 한-미 FTA 3년간의 성과를 축하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이 날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 한-미 FTA는 명백하게 양국에 이로운 협정으로, 3년이 지난 오늘 그 효과가 각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간 교역량 증가세에 미루어 볼 때,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주한 미국 대사로서 양국간 산업, 통상 및 교역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글 코리아, 삼성전자 등 각 산업 대표기업 뿐 아니라, 현 외교부 경제외교분과 이태호 조정관, 미국 미시시피 주정부 조석순 대표, 한국 미네소타 통상부 임한경 지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뷰티 산업분야에서는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윤주택 이사장이 한국 뷰티산업을 대표하는 단체 자격으로 초청되었다. 윤 이사장은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부 캐서린 스필만(Catherine Spillman) 외교관, 백희숙 상무 전문위원과 함께 별도의 좌담을 통하여 향후 상호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이 달의 메시지

– 즐거움을 연출하라–

당신은 날씨를 마음대로 바꿀 수
지만 기분은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외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스스로를 연출할 수는 있다.
당신은 항상 승리할 수 없지만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할 수는 있다.
즐거움은 원래 이렇게 단순하다.

– 장쓰안의 〈평상심〉중에서

예술적 여행을 추구하는…
YE 해외박람회 전문 :: ㈜예음여행사
[T] 02)548-3344 [F] 02)548-5315 WWW.YEEUM.COM YEEUM@YEEUM.COM

NY INTERNATIONAL LOGISTICS EXHIBITION & FORWARDING
NY INTERNATIONAL LOGISTICS CO., LTD.
Exhibition I Event I Im/Export Freight Forwarding
TEL. (02) 322-6801 | FAX. 050-5300-2013
EMAIL. expo@nyil.co.kr 문 경 배 팀 장
전시품 Door to Door I 일반 화물 수출입 포워딩 I 국내.외 이벤트 화물

해외 바이어와의 1:1 상담에 270개 뷰티기업 몰려

-IBITA, 올3월 중앙회와 '201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공동주관 성료-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주택)는 지난 3월 5일~ 6일 양일간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세콰이아&파인 홀에서 '2015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주관하여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상담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뷰티, 섬유·패션, 생활용품, 기계, 중전기기, 상하수도 기자재 분야 해외바이어 140개사, 국내 중소기업 400개사간 1:1 상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상담장 한 쪽에는 쇼케이스 형태의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상담시간 외에도 많은 바이어들의 이목을 끌었다.

201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전경

엄선된 해외 각국 진성 바이어들을 국내에서 만나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국내 기업이 신청한 이번 상담회에서 특히 뷰티분야의 참가열기가 뜨거웠다. 참가사 접수 및 1:1 매칭을 전담한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시간적·공간적 제한 탓에 해외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총 270여 국내신청기업 중 최종 180개사만 참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상담회 참가사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 뷰티분야에서는 양일간 25개 해외바이어사와 총 402건, 약 4,793만 1천 달러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현장계약도 4건 체결되었다.

2015년 3월 5일 진행된 '201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막식에 참가한 윤주택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이사장 (왼쪽에서 세 번째)

행사 개막일 VIP로 참가한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윤주택 이사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뷰티분야 주관단체로서 행사에 참가하여 우리 뷰티기업의 수출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특히, 이번 상담회 진행에 있어 어떠한 외부 도움 없이 협회 자체 해외바이어DB 만으로 해외바이어 초청부터 1:1 매칭까지 직접 진행하면서 리 협회의 역량도 한 단계 성장한 것 같다 보람이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는 불특정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참가와 다르게, 전문가에 의한 사전 수요조사 및 매칭으로 상담 성과가 극대화 하였으며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바이어들도 크게 만족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번 상담회에 초청된 해외 바이어에게는 1개사당 1인 왕복 항공비 및 양일간 숙박비가 지원되었으며,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BITA,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부 공동주관으로 미국 화장품 원료기업에 한국 원료시장 우수성 알려

-올 6월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사전 프로그램 일환으로, 미국 화장품 원료 기업에 한국 화장품 원료 시장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 진행-

국제 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주택)는 지난 4월 2일 한국시각 오전 8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미국의 대표 화장품 원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 화장품 원료시장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올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인-코스메틱스 코리아(In-Cosmetics Korea) 화장품 원료 박람회'의 사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는 미국 주요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기업의 한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당 박람회 공식 후원단체로서 전시주최사인 Reed Exhibitions,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부와 함께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주관하였으며, 특히 한국 화장품 원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한국의 화장품 원료 수입절차 및 관련 규정 등 미국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협회에서는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미국 원료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한국 제품 및 기업들을 매칭지원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우선, 한국 뷰티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관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한국에서 전 세계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히트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 원료 기업들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 원료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국 원료 시장의 우수성과 우수 제품들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2013년도부터 매년 아시아 대표 화장품 원료 전문 박람회인 '태국 인-코스메틱스 아시아(In-Cosmetics Asia'에 정부지원 한국국가관을 단독 수행하였으며, 올 해에도 동 박람회에 15개사 규모의 한국국가관을 진행한다. 또한, 새로이 각광받는 원료 시장인 터키에서 11월 12일~14일 개최되는 "2015년 터키 화장품 및 홈 케어제품 원료 박람회 (2015 Cosmetics & Home Care Ingredients)"에도 한국 단체관(KOREA-IBITA)을 주관할 예정이다.

문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마케팅팀 **02-861-8084~7**

2015 북미코스모프로프 한국관, 역대 최대규모 · 최고실적 달성

-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단독주관 정부지원 한국관 39개 참가사, 1040만 달러 현장계약 쾌거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이사장 윤주택)는 7월 12일부터 14일 미국 라스베가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 센터(Mandalay Bay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박람회 (Cosmoprof North America 2015)에 3년 연속으로 정부지원 한국관을 단독 주관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전시 구획 개편이다. 기존에 품목별 A~D 네 개 구획으로 운영되던 것이, 올해부터 유통 경로에 중점을 둔 프로페셔널 뷰티/ 화장품&퍼스널케어/ 용기 및 제조의 총 세 개 구획으로 나뉘면서 참가사 및 참관객 모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시 규모도 총 23,495sqm 면적에 39개국 1,107개사가 참가해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면서 뷰티 분야 세계 최고 B2B 박람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2015 북미 코스모프로프 한국국가관 전경]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가 3년 연속으로 주관한 정부지원 한국국가관 역시 규모 및 상담실적 면에서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전년도 대비 1.5배 확장된 한국국가관에는 올해 총 39개사가 참가하여 전시기간 총 4225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하여 약 1040만 달러의 현장계약을 체결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전시 구획 개편과 함께 전시장 주요 출입구와 바로 연결되는 좋은 위치에 한국관이 크게 확장된 것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협회에서는 입지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관 장치에 행잉 배너를 설치하여 바이어내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미국 뿐 아니라 멕시코 등 중남미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바이어가 한국관에 내방하였으며, 실제로 1개 기업당 상담 실적이 전년대비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이어 올해로 2년 연속 한국관에 참가한 한 기업은 "올해에는 전년보다 더 많은 바이어들이 방문해 성과가 훨씬 좋았다. 새롭게 확장된 한국관 위치도 무척 만족스럽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한국관 운영을 총괄한 협회 김은정 사무국장은 "3년 연속으로 정부지원 한국관을 운영하다보니 주최측과의 협력 및 운영부분에서 경험도 축적되고,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한국관' 브랜드가 인식됨에 따라 차츰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유망박람회를 선정, 정부지원 한국관 및 협회 직접 주관 단체관 운영해나갈 계획"고 밝혔다.

한편, 협회에서는 올 11월과 내년 3월 홍콩 코스모프로프 박람회 및 이태리 볼로냐 코스모프로프에도 약 50개사 규모로 협회 단체관(KOREA-IBITA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터키 뷰티유라시아 정부지원 한국관, 26개사 참가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2년 연속 KOTRA와 한국국가관 공동주관-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주택)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터키 이스탄불 Istanbul Expo Center에서 개최된 2015 뷰티 유라시아(Beauty Eurasia 2015)에 참가하여 전년도에 이어 올해로 2회째 KOTRA 공동주관 한국관을 성공리에 주관하였다고 밝혔다.

[2015 터키 뷰티 유라시아 한국관 전경]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1999년 개최한 이래 해당 지역 최대 규모 뷰티 박람회로 자리 잡았다. 올해에도 50여개국 약 600여개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참관객 중 해외바이어 비중이 월등히 높아 인접국가인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 중앙아시아 시장의 전문 바이어들이 대거 방문하여 참가기업들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었다.

당 박람회 한국 단독 대표부인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에 따르면 전년도 당 박람회에 19개사가 참가한 데 이어, 올 해에는 KOTRA 공동수행 한국관에 20개, 부산 테크노파크관 4개사, 제주기업 및 개별기업 2개사 등 총 26개 기업이 참가했다. 한국관에서는 총 16,903천불 규모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총 21건, 1,223천불 규모의 현장계약도 체결되었다. 터키에서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천연성분의 스킨케어 제품과 색조화장품 뿐 아니라, 에스테틱 관련 장비 제조 기업들도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이번 박람회 한국관에는 전태동 주터키한국총영사와, MURAT AKYUZ 터키 화학원료협회 회장이 내방하여 한국기업들의 전시활동을 독려하였다.

협회 관계자는 " 전시회 주최사 에서도 해외 바이어 유치에 힘쓰고 있기도 하고, 지리적 입지조건상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으로부터 바이어들이 많이 찾아오는 박람회로 해가 더할수록 성장하고 있다. 협회에서도 내년도 한국관 규모를 더욱 확장해 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문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마케팅팀 **02-861-8084~7**

2015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역대 최다 참관객 기록

– '16년도 국가관(30hall), 19hal, 18hall 45개사 규모 한국단체관 모집중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주택)는 지난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2015 이태리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Cosmoprof Worldwide Bologna 2015)에 40개사 규모의 한국단체관(KOREA-IBITA)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로 48회째를 맞는 볼로냐 코스모프로프는 뷰티산업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박람회로 유럽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권위 있는 뷰티 박람회로 손꼽힌다. 특히 올해에는 해외 참관객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총 24만 8천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하여 역대 최다 참관객 기록을 경신했다.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는 2012년 국내 최초로 실내 (30홀 국제관)에 한국 단체관(KOREA-IBITA)을 주관한 이래 매년 규모를 확장하여 참가 4년째인 올 해 총 32개 기업이 30홀에 참가하였다. 30홀은 국가관 전용 홀로서 올해에는 폴란드, 미국, 독일, 프랑스, 그리스, 벨기에, 스페인, 파키스탄, 터키, 말레이시아, 호주, 영국, 이스라엘, 페루, 아랍에미레이트, 태국, 네덜란드, 중국, 대만 등 총 27개국이 참가 하였다. 또한 국제관 뿐 아니라 19홀(에스테틱,스파 섹터)에 6개사, 18홀(화장품 용기 및 부자재 섹터)에 2개사가 협회를 통해 박람회에 참가 하였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협회 단체관에서는 총 2,74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상담액이 86,849천불, 현장계약액이 83천불에 달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관계자는 "볼로냐 코스모프로프는 세계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뷰티산업의 상징성을 지닌 박람회이기 때문에 매년 더 많은 참가기업은 물론 세계 각국의 전문 바이어들이 발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 참가기업 중 2016년도 재참가 신청율이 85%에 달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참가 수요도 높은 박람회로서 내년도에는 한국 단체관을 40sqm 가량 더욱 확장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문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마케팅팀 **02-861-8084~7**

[2014년도 이태리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협회 단체관 전경]

IBITA, 러시아 · 중국 시작으로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 본격 가동

-러시아 모스크바 에스테틱 유통망 진출사업, 중국 장쑤성 국영방송(JSBC) 온라인 역직구몰 진출 사업-

국제 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이사장 윤주택)의 기세가 대단하다. 연간 20여회의 해외박람회, 해외인증 등 세미나,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해외시장진출 사업이다. 협회는 우리 뷰티 기업들의 수출증진에 조금 더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유망한 시장을 선정하여 직접진출 및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IBITA 해외시장 진출 사업' 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시작은 중국 온라인 역직구몰 시장과 러시아 모스크바 에스테틱 시장이다.

먼저, 중국 장쑤성 국영방송국(JSBC) 양쟝채널의 '려치여신(丽致女神)'은 한 · 중 패널이 공동 MC를 맡아 한국의 최신 뷰티 트렌드, 신제품 소개, 한류스타의 뷰티 노하우 공유 등 한국 뷰티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다.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방송중 제품명을 직접 노출할 수 있는데다, JSBC의 경우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고객응대센터 및 PPL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역직구 몰과 연계하여 홍보와 판매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역직구몰을 통한 판매는 중국 위생허가가 필요없다는 큰 장점이 있다. 양쟝채널은 2억 명의 유료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고, 온라인 몰 접속자가 매일 7천만건에 이르는 뷰티전문 채널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많은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현재 방송 실무진과의 사전미팅을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이 현재 방영 및 역직구몰 입점을 진행중이다.

또한, 협회는 러시아 현지 파트너와 MOU를 체결하고, 모스크바 주 및 모스크바 시의 8천여 개 에스테틱 샵 유통망에 피부관리전문제품, 에스테틱 기기, 전문 헤어케어 제품 제조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직 러시아에서는 한국 제품에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효가가 좋은 중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특히 러시아 소비자들은 에스테틱 샵을 통한 토탈케어 및 이와 연계된 홈케어를 선호하기 때문에 향후 홈케어가 가능한 제품의 전망이 밝다.

협회에서는 앞으로도 품목별 유망한 시장을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직접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와 러시아 YKBH사간의 MOU 체결모습]

올 12월, 홍콩서 최대규모 한국뷰티 · 패션상품전 개최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한국기업 400개사 규모 '2015 홍콩 크리스마스 한국 상품전' 참가사 모집-

오는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 홍콩 전시컨벤션센터(HKCEC)에서 '2015 홍콩 크리스마스 한국 상품전(KCFair 2015)이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한국 상품전로는 최대 규모로, 뷰티 · 패션분야 한국 기업으로만 약 400개사 참가 예정이다.

크리스마스에서 신년으로 이어지는 시기는 홍콩의 최대 세일 시즌으로, 홍콩관광청(HKTB)에 따르면 작년에 56만 명이 홍콩을 찾았다. 이번 박람회는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일반 참관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뷰티 및 패션 제품만을 판매하는 B2C 박람회로서, 메르스 여파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우리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 줄 호재가 될 전망이다.

홍콩 정부 와 홍콩전시컨벤션센터(HKCEC) 에서도 이번 박람회를 주요 관광컨텐츠로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아시아 전 지역에 위성방송을 송출하는 Asia Satelite를 비롯하여, 중국의 유튜브(Youtube)라 불리는 중국 최대 동영상공유 기업인 러스왕(樂視網 LeTV)을 통해 홍보를 진행한다. 조기 참가신청 기업에는 무료 홍보도 진행예정이다. 개막식에는 홍콩상업경제국 차관 Godfrey Leung, 홍콩관광위원회장 Cathy Chu를 비롯하여 김영동 주홍콩 한국총영사도 참석한다.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개최된다. 전시 개막일인 12월 18일 금요일 저녁에는 한류스타가 참가하는 K-Pop 콘서트가 개최되어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홍콩과 중국의 전문 바이어와의 1:1 매칭, 네트워킹 행사도 마련되어 있어 B2B 시장도 공략할 수 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한국 뷰티 전문 박람회 중 역대 최대 규모 !

한국 뷰티 기업 400여개사 참가예정 !!

크리스마스 시즌, 쇼핑의 메카 홍콩에서 개최 !!

2015 KCFair 개요

기 간	2015. 12. 18 (금) - 12. 20 (일), 3일간
장 소	홍콩 HKCEC Hall 1A, 1B
규 모	10,000sqm, 한국 뷰티/패션기업 400여 개사 (예정)
품 목	화장품, 미용기기, 헤어, 네일, 의류, 액세서리, 아동복, 웨딩, 성형수술 등
부대행사	Super K-POP 콘서트/ B2B 바이어 매칭 / 네트워킹 파티 (칵테일 리셉션)
한국주관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한국뷰티산업무역원
문 의 처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마케팅팀 Tel. 02-861-8084~7 / Fax. 02-6280-3368 / E-mail. ibita@ibita.or.kr

높은 구매력, 빠르게 증가하는 젊은 중산층
-세계가 주목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뷰티시장-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이란(4월) 뷰티&클린 박람회에 이어 중동 최대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11월) 뷰티 박람회 한국 단체관 단독 주관 -

(사)국뷰티산업교역협회(회장 윤주택)는 이번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테헤란에서 개최된 이란 뷰티&클린 (Iran Beauty & Clean 2015) 박람회에 한국 단독 대표부로서 6개 부스 규모의 단체관을 성공리에 주관하였다.

이란은 인근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중동지역 전체 화장품 구매량 중 3분의 1이 이란의 15세~45세 여성일 정도로 화장품 소비가 많은 시장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경제제재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수입 화장품 이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근 많은 해외 기업들이 각종 무역 제재에도 이란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화장품은 태국, 터키, 중국산 값싼 제품의 대체제로서 이란 시장 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22회째 개최된 이란 뷰티&클린 박람회 역시 최근 해외 기업들의 시장진출 열기에 힘입어 2012년부터 해외 참가사 수가 2배씩 증가하고 전시 규모 역시 40%대 성장률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년도에는 약 25,000sqm 면적에 13개국(독일, 스페인, 캐나다, 프랑스, 터키,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홍콩, 한국, 그리스,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에서 총 250개사가 참가하였다.

협회 주관 한국 단체관에 참가한 한 화장품 OEM & ODM 기업은 "이미 이란 내 협력사가 있었는데, 직접 참가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반응이 뜨거웠다. 내년에는 부스 규모를 두 배 가까이 확장하여 참가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화장품을 제조하는 다른 참가사도 "화장품 품목의 전망이 괜찮은 시장이었다. 한국 단체관 부스 위치도 무척 좋았다." 고 답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년도는 뒤늦게 시작하여 6개사 규모로 진행하였으나, 내년에는 총 15개사 규모로 확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에서는 이란 시장에 이어 하반기에 중동 최대 뷰티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 젯다에서 개최되는 2015 사우디 헬스&뷰티 (Saudi Health & Beauty 2015)에 한국 단체관을 단독 주관한다. 전년도 처음 개최된 당 박람회는 세계적 전시주최사인 Reed Exhibitions 가 주최하는 박람회로, 첫 회개최됨에도 L'oreal, YVE ROCHER, VICHY, M.A.C, Wella, BOURJOIS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 참가하였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답게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성 1인당 연간 화장품 구매금액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꼽혔다.(2014년 기준 $3,800). 아울러 중동에서 전문 뷰티살롱 점포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에스테틱샵 뿐 아니라 병원 및 클리닉을 통한 1:1 맞춤형 케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건조한 기후와 더불어 기름진 음식 위주 식습관으로 최근 비만관리와 천연 및 유기농 성분의 기능성 화장품, 안티-에이징이 각광받기 시작하였으며, 유럽과 명품 브랜드들이 시장 내 럭셔리 케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토록 잠재력이 큰 시장임에도 아직까지 한국 기업의 시장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비자가 없고, 35세 이하 여성 외국인이 상용비자를 취득하기가 무척 까다롭기 때문.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이 해외여행 하는 일도 드물어 시장진출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작년부터 여성 비자발급 연령을 만 25세로 대폭 낮추고 주최사를 통해 비자발급에 필요한 초청장을 일괄 발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다. 올해에는 특히, 공공장소에서 가족이외의 남녀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우디 특성상 전시장 내에 특별히 마련된 여성 전용 체험 공간에서 한국 기업들이 제품을 시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여, 화장품, 네일, 피부 관리기기 등 사우디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마케팅팀 **02-861-8084~7**

미리 준비하는 인도네시아, 호주 뷰티 시장

-IBITA, 올 8월 인도네시아와 호주 뷰티 박람회에 한국단체관 단독주관-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이사장 윤주택)는 올 8월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뷰티 박람회(INDO Beauty 2015)와 호주 뷰티 박람회(Beauty Expo Australia 2015)에 각각 10개사 규모의 단체관을 주관한다고 밝혔다. 벌써 여섯 번째 신규 박람회 개척이다. 협회 관계자는 "코스모프로프처럼 큰 규모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시장일 경우 내수시장공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며, "특히 현지 바이어 및 소비자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박람회에 많이 참가해 본 기업일수록 신흥시장에서 개최되는 전시참가 수요가 크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뷰티 시장 중 하나다. 특히 다른 개도국과 달리 부의 재분배 및 확산이 빨라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13년 1억 3,100만명에서 2030년 2억 4,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뷰티 시장은 연간 5.9%의 성장률을 기록함에도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1%대로 저조한 편.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입소문을 탄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앞세운 발빠른 공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협회가 단독 대표부로 있는 인도네시아 뷰티 박람회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인도네시아 내 유일한 B2B 박람회로서 진성 바이어와의 상담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화장품 협회 및 성형수술협회 공식 후원 박람회로 화장품 뿐 아니라 성형수술 및 피부관리 제품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박람회이다.

호주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미 안정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는 선진시장이다. 그러나 최근 호주 내 아시아계 이민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한-호주 FTA가 발표되어 당분간 아시아 유수 국가들 가운데 한국산 뷰티제품의 전망은 밝을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 앞으로도 유망한 해외 박람회 발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판로 다양화 및 수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마케팅팀 **02-861-8084~7**

동남아 뷰티시장의 허브, 태국 방콕

- 태국 아세안 뷰티를 가다 -

2015년 4월 6일 월요일. 〈태국 아세안 뷰티〉 박람회 한국 단체관 운영 건으로 방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올 해 들어 두 번째 출장이다. 나는 유독 동남아로의 출장을 좋아한다.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견딜 만한 비행시간, 따뜻한 날씨, 온갖 맛있는 음식들, 넓고 쾌적한 호텔방, 친절한 사람들까지. 전시장과 호텔만 오고가는 빡빡한 일정일지라도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구석이 많다고나 할까. 다만 〈태국 아세안 뷰티〉가 처음 개최되는 탓에 기대와 함께 약간의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드디어 전시 개막일 아침.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장대비가 퍼부었다. 개막식까지 마친 전시장은 한산했다. '비가 와서 그렇겠지, 교통 체증 때문 일수도 있어.' 그 짧은 시간 얼마나 조마조마했던지. 하늘이라도 뚫린 듯 무섭게 쏟아 붓던 비는 점심시간 무렵 잦아들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전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전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태국 현지기업 중에는 온갖 천연원료로 만든 스파용 제품을 선보이는 곳이 많았다. 레몬그라스, 붉은 쌀, 망고, 릴라와디, 민트 등 태국에서 나는 다양한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들이 주를 이루었고, 샵에서 쓰이는 각종 브러쉬, 면봉, 아로마 등 관련 제품들도 눈에 띄었다. 과연 '스파의 나라' 다웠다.

특히, 제품 외적인 부분에서까지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주고자 많은 공을 들인 것이 눈에 띄었다. 어떤 부스에서는 유기농 원료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해내는 증류장치를 부스에 설치해놓기도 하고, 또 다른 곳은 원료를 재배하는 농장이나 농부 사진을 잡지 화보처럼 걸어놓은 곳도 있었다. 부스 디자인에서도 나무, 돌, 재생지 등을 활용해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곳이 많았다. 태국은 아세안 열 개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뷰티시장으로 일찌감치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품의 브랜딩이나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코스메슈티컬' 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민감성 피부, 여드름 피부를 위한 화장품과 주름과 미백 기능성 제품들, 그리고 전문 헤어 케어 제품 부스에도 많은 바이어들이 찾았다. 한류 붐을 타고 2009~2010년부터 한국 제품들이 점유율을 서서히 늘려오고 있긴 하지만, 일본 제품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아보였다. 일본관 참가사 중에는 흰색 가운을 입고 검증된 성분임을 강조하거나, 제품 이용 전/후 사진을 걸어놓는 등 뛰어난 기능성을 강조하는 곳이 많았다. 반면, 중국관에는 용기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한국 단체관에는 화장품, 원료, 홈 케어용 미용기기, 그리고 에스테틱 샵 에서 쓰이는 피부관리 장비 기업 총 10개사가 참가했다. 전시장 입구 바로 앞 좋은 위치에 자리한 덕분에 많은 바이어들이 방문했는데, 특히 화장품과 원료에 대한 현지 바이어들의 호응이 좋았다. 참가사분들도 입을 모아 부스에 방문한 바이어들의 수준도 높거니와, 예상치 못한 다양한 나라들–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에서 바이어가 찾아온 것에 크게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태국에 있는 미주/유럽 기업의 바잉 오피스(Buying Office)에서 참관을 나온 서양인들도 제법 눈에 띄어, 앞으로 국제 박람회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다.

삼일 간의 전시를 무사히 마친 마지막 날, 나는 아속(Asok)역에 들러 맛있는 저녁을 먹고 쇼핑몰을 돌며 구경도 했다. 가족과의 여행 이후 근 10년 만에 다시 찾은 방콕은 조금 더 활기찬 모습이었던 것 같다. 2015년부터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 얼마나 또 많은 것이 바뀌게 될지 궁금함을 안고, 벌써 내년도 전시회를 기대해본다.

[2015 태국아세안뷰티 전시장에서 인터뷰 중인 모습]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주관진행 해외유망박람회

2015년 하반기 해외 유망 박람회

연번	전 시 회 명	개 최 기 간	진 행 상 황	품 목
1	2015 뉴욕 코스모팩 Cosmopack NY 2015	2015.9.16 ~ 9.17	참가사 모집완료	화장품 용기, 메이크업, 네일
2	2015 체코 추계 프라하 인터뷰티 Interbeauty Prague 2015	2015. 10.17~ 10.18	KOREA-IBITA관 모집완료	뷰티종합
3	2015 멕시코 뷰티 엑스포 Expo Beauty Show 2015	2015. 10.25 ~ 10.27	한국관 15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4	2015 태국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In-Cometics Asia 2015	2015. 11.3 ~ 11.5	한국관 15개사 모집완료 '2015년 정부지원 확정'	화장품원료,용기
5	2015 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Cosmoprof Asia 2015	2015. 11.11 ~ 11.13	KOREA-IBITA관 60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6	2015 터키 화장품 원료 박람회 Cosmetics & Homecare Ingredients 2015	2015. 11.12 ~ 11.14	KOREA-IBITA관 10개사 모집중	화장품원료,용기, 화장품
7	2015 사우디 헬스&뷰티 박람회 Saudi Health & Beauty 2015	2015. 11.25 ~ 11.28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8	2015 미국 라스베가스 A4M 안티에이징 전문 박람회 Las Vegas A4M Show 2015	2015. 12.11 ~ 12.13	참가사 10개사 모집완료	에스테틱
9	2015 홍콩 크리스마스 한국상품전 Korean Christmas Fair 2015	2015. 12.18 ~ 12.20	한국참가사 400개사 모집중	뷰티, 패션

2016년 상반기 해외 유망 박람회

연번	전 시 회 명	개 최 기 간	진 행 상 황	품 목
1	2016 중국 춘계 광저우 뷰티 박람회 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Spring) 2016	2016. 3.9 ~ 3.11	KOREA-IBITA관 30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2	2016 이태리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Cosmoprof Worldwide Bologna 2016	2016. 3.18 ~ 3.21	KOREA-IBITA관 50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3	2016 말레이시아 뷰티 프로페셔널 Beauty Professional Malaysia	2016. 3.21 ~ 3.24	한국단체관 10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4	2016 두바이 피부미용 전문 박람회 Dubai Derma 2016	2016. 4.12 ~ 4.14	KOREA-IBITA관 25개사 모집중	피부미용기기, 화장품
5	2016 태국 아세안 뷰티 박람회 ASEAN Beauty 2016	2016. 4.28 ~ 4.30	KOREA-IBITA관 15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6	2016 이란 뷰티&클린 박람회 Iran Beauty & Clean 2016	2016. 4월 중	KOREA-IBITA관 모집중	개인위생용품, 뷰티종합
7	2016 터키 이스탄불 뷰티박람회 Beauty Eurasia 2016	2016. 4.21 ~ 4.23	KOREA-IBITA관 25개사 모집중 '2014,2015 정부지원 KOTRA 공동수행'	뷰티종합
8	2016 중국 하계 상하이 뷰티 박람회 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2016	2016. 5.16 ~ 5.18	KOREA-IBITA관 30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9	2016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Cosmoprof North America 2016	2016. 7월 중	한국관 40개사 모집중 '2013-2015 정부지원 IBITA 단독수행'	뷰티종합
10	2016 인도네시아 뷰티&메디케어 Indobeauty & Indomedicare 2016	2016. 8월 중	KOREA-IBITA관 모집중	뷰티종합, 메디컬
11	2016 호주 시드니 뷰티 엑스포 Beauty Expo Australia 2016	2016. 8월 중	KOREA-IBITA관 모집중	뷰티종합
12	2016 브라질 뷰티 페어 박람회 Beauty Fair 2016	2016 9월 중	한국관 15개사 모집중 '2015년 정부지원 IBITA 단독수행'	뷰티종합
13	2016 중국 추계 광저우 뷰티 박람회 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Autumn) 2016	2016 9월 중	KOREA-IBITA관 30개사 모집중	뷰티종합

IBITA
(International Beauty Industry Trade Association)
T. (82) 2-861-8084~7 F. (82) 2-6280-3368 E-mail: ibita@ibita.or.kr
www.ibita.or.kr

2016년 춘계 광저우 중국 국제 미용박람회

2016년 하계 상하이 중국 국제 미용박람회

2016년 이태리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2016년 태국 아세안 뷰티 박람회

2016년 이태리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2016년 두바이 국제 피부미용 박람회

2016년 터키 뷰티 유라시아

2016년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